

# “같은 생활권인데 보상 다르다니...” 항의 목소리

### 광주서 전투기 소음 보상 설명회 소음지역 제외 주민 형평성 지적 용역사 누리집서 개별 의견수렴 연말 지정·고시...내년 8월 보상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보상 방안 안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공군 전투비행단이다 도심에 주둔하는 광주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3일 광주 5·18자유공원 강당에서 군용 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 설명회

를 개최했다. 광주지역 통합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군 공항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에서 주민 99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 광주시와 각 자치구 관계자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소음 측정 방식과 결과, 보상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광주에서는 4개 자치구에서 24개 동이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총 6만3000여명이다. 1명당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인 2종 지역 월 4만5000원, 85~90웨클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무형의 경계선을 두고 항의 목소리를 냈다. 군 공항 소음 민원이 잦았으나 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광산구 월곡·운남·신가·신창동 주민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광산구 송정동 한 아파트단지 주민은 일부 동만 제외된 결과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 동곡동 등 일부 자연마을의 주민도 동일 생활공동체 안에서 보상 여부가 나뉘는 국방부 안을 두고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서구와 남구, 북구 주민들은 순간 최대치가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소음 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민간공항 수준의 대책

마련 요구 등을 제시했다. 각 자치체는 주민 의견과 지적을 수용해달라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10일까지 용역사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간 뒤 연말까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 8월 시작되며,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소음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소음법으로 불리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소송 제기 없이 내년부터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 전남도, 5~8일 순천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5일부터 8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내 삶의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순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한다. 당초 지난해 개최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로 순연 개최하게 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로 진행하는 등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351개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며,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평생학습을 통해 내 삶의 미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사의 컨셉을 구성했다. 개막행사, 전시마당, 주요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외부박람회의 등 총 6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선 식전공연, 평생학습도시 공동선언,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반수여식 및 재지정평가 우수평생학습도시 시상식이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 통행관과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홍보관에선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잡이 전남도 지정행정국장은 “100세 시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등 9개 사업 20필지 재결 광주시 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광주시는 오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평가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동구청장)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남구청장) ▲삼도 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광산구청장) 등 9개 사업의 토지 20필지(1만3996㎡), 지장물 5건 등에 대해 재결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 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1~2개월 간격으로 약 7~9회 정도 개최되며,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9월23일 열린 제6회 위원회에서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 토지 39필지(2983㎡), 지장물 25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한 바 있다.

김경호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 광주시, 도시공원 훼손지 시민휴식처로 복원

### 2024년까지 9개 민간공원 1조4천억 들여 1백만㎡ 복원 생태계 보존·여가 체육시설 조성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맞춰 도심 공원에 훼손지를 시민휴식처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내에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부지를 확인하고, 오는 2024년까지 생태숲 및 시민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사업을 진행되는 민간공원은 중앙공원 등 9개 공원으로 면적만 712만2000㎡(비공원 제외)

에 이르고, 현재 파악된 훼손지는 전체 14%인 100만3000㎡(14%)다. 전체 사업비는 공원 공사비 3117억원, 토지 보상비 1조1694억원 등 1조4811억원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게 되며, 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은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장기간 불법 경작으로 농업용 쓰레기, 농막 등이 뒤덮거나 산림이 훼손된 공원에 참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등을 심고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각 공원별로 시민을 위한 여가·체육 시설도 들어선다. 일곡공원은 그라운드골프장(7920㎡), 중앙공원 캠핑장(2만2380㎡), 수량공원 애견놀이터

(987㎡), 마북공원 황토건강길(255m), 운암산공원 전망대, 송암공원 축구장, 봉산공원 복합문화센터, 중외공원 피크닉광장(1440㎡), 신용공원 자연학습원(1000㎡) 등이 들어선다.

특히 도심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공원과 중외공원 등을 광주시민의 대표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심 속 자연 생태계가 보존·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중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공원은 시민 휴식처는 물론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하는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마을버스 지원한다 업계, 휴업신고 취소·정상운영

광주 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 등에 따른 운영 중단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3일 오후 시청에서 마을버스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승객들이 급감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시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광주시는 마을버스 운영 개선과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마을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마을버스업계는 8개 노선 5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 자치구에 오는 8일부터 모든 노선의 운영을 멈추는 휴업신고를 제출한 상태다.

마을버스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 후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